

종무식 송년말씀

한 해 동안 불교 발전, 종단 발전을 위해 애쓰신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그리고 직영사찰의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불교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의 기둥이자 대들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종단은 올해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에 참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사회적 충돌과 정치적 격변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함께했던 모두의 아픈 상처가 조속히 아물길 기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새삼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행, 동체대비행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단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실천을 확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실력들 더 쌓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급한 문제입니다.

그 실력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조건이 돼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여유로운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종무원들은 보다 면밀하게 살림을 살아야 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력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일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겨울에도 자라나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 듯이,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단단한 실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며칠이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각자를 잘 점검하여 한해를 지탱하는 단단한 마음의 나이테를 만들어 한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종단 지도부와 여러분들은 한 길을 걷어가는 도반입니다. 도반은 서로를 마주 보기보다는 나란히 함께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주보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나도 하겠다는 비주체적 태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함께 보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체적 태도입니다. 그것이 임제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요, 우리가 지금 결사의 구호로 삼고 있는 ‘붓다로 살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나만의 시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동료의 시각, 전체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료들의 공감 속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질책을 앞세우고 서로를 비판만 한다면 길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종단엔 종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공적은 공적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쌓일 것입니다. 매년 설계하는 신년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으면 과거를 되풀이하는 습관만 키우게 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연말연시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서원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붓다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종정예하와 원로스님의 공덕과 덕화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더 큰 분발을 기대합니다.